

朝鮮時代 氏族마을의 住居平面類型 研究 - 慶尙南道 山淸 丹溪마을 -

李奎成

건축학과

〈要 約〉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전통마을의 주택들을 실측조사하여 도면화하고 다양한 주택의 평면구성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의 정연한 질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질서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58채의 주택이 분석되었는데 이들은 안채를 기준해서 볼 때 네개의 기본형으로 분류된다. 안채 기본형은 다시 각각의 변형을 파생시키고 있는데, 기본형과 변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각 형의 형태와 배열을 규정하는 일정한 질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안채평면은 전면2칸형에서 시작하여 전면6칸형까지 횡방향으로 칸수가 증가하며, 동시에 보(종)방향으로도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이 종방향의 증가는 토의 설치, 겹집화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거 공간의 질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사랑채의 경우는 평면이 네종류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이들의 형태는 거주자의 경제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the house types of a traditional village formed in Choson dynasty - Case of Dangye village, Sancheong-Gun -

Lee, Kyu-Sung
Dept. of Architecture

〈Abstract〉

* 본 논문은 1992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진흥기금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study aims at interpreting house types of a traditional village into a coherent structure having a certain order of itself.

58 houses are analyzed and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4 prototypes in reviewing their Anchae, main building of each house. Each prototype of Anchae has several changed types.

Among prototypes and changed types there are certain orders which regulate the form and layout of each type : two-span buildings increase spans laterally until they reach 6 spans. And at the same time they increase areas longitudinally with the addition of Toi area until they become Gyup-jip, two-row houses. This change could be called a qualitative development.

In reviewing 29 Sarangchae, male's quarter of each house, building plans could be classified into 4 types, the formation of which are dependent on the level of each resident's economy.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통주거는 선조들의 생활상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투영된 유형적인 사료이며, 민족문화의 중요한 유산이고, 건축적으로는 한국건축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본 연구는 전통적 축조방식에 의해 지어진 집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한 마을을 대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연구 가치가 있는 주택들을 모두 실측조사하여 분석해 본 것이다.

지금까지의 민가연구에는 廣域的으로 가치있는 주택들을 실측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연구자가 자신의 분석에 도움이 되는 사례만을 수집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귀중한 사례들을 제외시킬 위험이 있다. 중요한 사례들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분석은 또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일찌기 광역연구에 대해 상

기와 같은 의문점을 갖고, 소지역의 전통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측작업에 참여하였고¹⁾ 전통마을 하나(경북성주 한개마을)를 택하여 그 소지역내 주택들 간의 연관성을 캐내어 하나의 질서를 밝히는 작업²⁾을 해 보았다.

이번 연구도 앞선 연구의 후속작업으로서 마을 전체의 전통주거를 실측하고 이를 대상으로 해석하는 작업에 임하게 되었는데, 안채와 사랑채의 유형을 분류하고 배치에 있어서의 질서를 고찰하였다.

씨족마을은 현재까지도 한국의 전통주거의 유구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지로서 씨족마을인 단계 마을이 선정되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단계리 마을의 주택 58채를 대상으로 이들을 실측조사하여 평면도를 그리고 이들 중 안채의 유형에 있어서는 3개의 기본형을 설정하며 이 기본형에서 발전되는 변형을

1) 울산공과대학 건축학과, 전통취락 실측조사 연구-남사-, 1983.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전통취락 실측조사 연구-묘동-, 1987.

2)拙稿, 지역건축의 규범적 질서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논문집 제1호, 1989. 2.

찾아 이를 유형화하며, 변형의 이유를 생활상에서 찾아 이를 대응시킨다. 마찬가지로 사랑채에서도 몇개의 유형을 찾아 그 특징을 파악하며 주택배치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단, 주거실측조사시 근래에 들어와서 변형시킨 부분은 복원하여 건립당시의 옛모습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이 마을 전통주택의 건립시기는 가장 오래된 박씨고 가가 1820년대에 지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88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로 30년 전까지도 목조뼈대에 삼을 넣은 쥙벽의 전통적 주택건축방식이 이어져 왔다. 즉, 산업사회 이전의 건축구법과 형태로 건설된 주택들은 조선시대 주택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었다. 이 지역은 奧地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화의 흐름에서 뒤떨어지고 전통적 주택축조방식이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다.

물리적인 연구범위는 단계리 마을의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변형이 심한 것은 제외시킨 결과 58개의 주거가 실측되었다. 이들을 분석하여 기본형을 추정하고 이의 변형을 탐구하여 그 속의 질서를 고찰하였다. 분석은 실측된 평면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측조사기간은 1차조사가 1990년 10월, 2차조사가 1992년 8월, 3차조사가 93년 2월이었다.

II. 연구대상 마을의 개관

단계리는 행정구역상 慶尙南道 山淸郡 丹城面 丹溪里이며 1989년 6월 현재 327가구 1307인(가구당 3.99인)이 거주하는데³⁾ 이 중 농가가 202 가구(농가율 6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을은 다시 東丹, 西丹, 南丹, 北丹의 네개 洞으로 분리되지만 지역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의 성립은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로는 1000년이상 되었다고 하나, 확실한 것은 서기 1580년경 진양 유씨가 살고 있는 마을에 유씨의 사위인 東溪 權濤(시호 忠康公, 1575년생)가 합천군 대병면에서 입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그후 약 100년 후(17세기말 경) 權씨의 외손인 朴尙悌가 모친(朴弘遠의 부인 권씨)과 7세때 고령군 운수면 유동에서 단계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이 마을은 권씨(安東)와 박씨(順天)의 2성씨족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氏族部落으로 발전하였다. 부농주거로 분류할 수 있는 집의 대부분을 권씨와 박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성씨는 副次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은 넓은 들을 끼고 있어 농산물이 풍부하며 부자들이 많이 사는 마을로 소문이나 있었다고 하며 新等面 면소재지로서 인근의 행정중심이 되고 4.9일에 5일장이 서는 流通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마을의 형상은 뒷산(듬미산)⁵⁾과 앞내(陽川江) 사이에 길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형국이 배모양(舟形)인데 배의 사공역 할을 하는 돌부처가 강옆에 있고 뜻대⁶⁾ 두 개가 남북에 각각 1개씩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가에 있어서, 마을의 形狀은 財貨를

- 3) 善生永助가 조사한바 (朝鮮의 聚落 후편, 1933년, p.480, 50戶이상의 저명 동족부락)에 따르면, 부락발생연대 : 不詳, 동족성씨 : 安東權氏 78호 386인, 順天朴氏 26호 123인, 동족外 238호 1162인, 부락호수 : 342호, 인구 : 1671인으로 되어 있다.
- 4) 新等面長이자 이 마을에 거주하는 權雙鉉씨는 권씨 입향조가 권 도의 하나 웃대라고 주장함.
- 5) 돌무더기 산이라는 뜻의 이 산은, 양천강과 대립적인 형상으로 마을의 서편에 길게 자리하고 산의 중턱까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은 배(마을)의 碇泊地(피난과 수호)라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 6) 木刻된 기러기를 나무로 된 장대위에 세워놓은 것으로 얼마전 없어졌다고 한다. 솟대 또는 진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가득 실은 배의 모습과 같다고 한다. 형국이 배이므로 우물파는 것을 가능한한 삼가하다가 日政末부터 각자 파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위 主山을 배경으로 한 左青龍右白虎의 結構는 갖추지 않았으나 인근 황매산의 氣가 이 마을로 빤혀 이 마을이 明堂이 된다고 한다.

동네의 바닥을 파면 흰빛의 모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점으로 볼 때 현재의 주택지가 집터로서 이용된 것은 200년 미만이고 그전에는 하천의 바닥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권씨가 최초 입향한 16세기 말에는 동네의 형상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리라고 추정된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박씨고가로 170-18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100년 된 집으로 박노관씨 집이 있고 그 외는 건립연대가 떨어진다. 현재 박씨의 주택지는 마을의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고 권씨의 주택지는 마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또한 박씨는 이 마을에 齋閣을 가지고 있으나 권씨는 인근의 양전리에 두고 있다. 권씨문중의 書堂으로 完溪서당이 옆 동네에 있어 權濤와 그의 조카 權克亮을 모시고 있다.

마을로 들어오자면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곳을 止馬고개(峴)라고 하며, 옛날에는 이 곳이 양반마을이었으므로 이 고개에 오면 말에서 내려야 했다고 한다.

III. 안채의 평면유형(56채)

주거는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는 대상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의 원형을 추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이다. 생활에 대응되는 건축공간은 생활이 변화하게 되면 생활상에 적합한 건축공간으로 유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建築的 原型의 概念에 立脚하여 進化的 觀點으로 민가의 변형의 유형을 파악했으며, 우선적인 분석대상으로는 塹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생활 공간의 중심 건물인 안채를 잡았다. 분석의 대상은 안채 56채이다.

연구대상 지역내에서 안채의 평면 유형은 경남과 경북의 영남 내륙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3칸 흘집형⁷⁾”과 “대청이 있는 흘집형⁸⁾”이 주종을 이루며, 그 규모는 前面 3間부터 6間까지 있으나 3間 규모와 4間 규모의 안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면유형의 분류는 前面 間의 數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 지역내에서 典型의 주택이라고 추정되는 집의 평면을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각 주거 평면의 변형된 유형을 파악했다.

1. 전면 2칸형의 평면유형(기본형 I)

전면 2칸형은 한국 민가건축에서 최소규모의 주거공간이며, 평면구성은 방+정지로 이루어진다. 이 기본형에서 방의 수가 증가되고 뒷마루, 정지방등이 첨가되어 평면의 공간구성이 변화된다. 연구 대상 지역에서는 2채가 발견되었다.

평면의 변형유형은 정지가 2분화되어 정지+정지방으로 분할 확대되며, 전퇴를 만들어 뒷마루의 깊이를 방쪽으로 넓혀 방의 규모를 축소시킨 대신 마루에서의 생활공간을 확장시켰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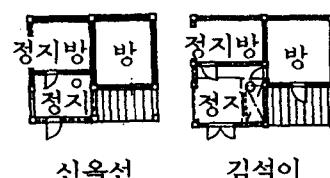


그림 1. 전면 2간형 안채의 기본형(I)

7) 조성기, 韓國南部地方의 民家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사학위논문, 1985, p. 23.

8)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 137.

2. 전면 3칸형의 평면유형(기본형 Ⅱ)

전면 3칸형의 평면 구성은 정지+안방+건넌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면 4칸형과 더불어 일반적인 서민계층의 주거유형으로서 형식보다 생활의 합리성이 주거유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럼, 2의 기본형 주택들에서 볼 때 전면 2칸형에서 우측으로 방이 부가되어 발전된 평면유형이다. 같은 그림 중의 하득녀씨 집의 경우 전퇴가 있는 3칸형인데, 전퇴부분에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퇴깊이 만큼의 뜬마루를 짜넣어 마루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마루는 퇴칸 전체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건너방의

아궁이 위치에서 끝이나며, 아궁이의 바닥면이 약 24cm가량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構法이 古形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이 마을에서의 전면 3칸형 평면유형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어감을 엿볼 수가 있다. 하나는 3칸 홀집으로의 발전이고, 또 하나는 겹집으로 이어지는 발전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완전하게 겹집으로 발전된 유형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겹집보다 폭이 좁은 반겹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인다. 그럼, 2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의 특성별로 5가지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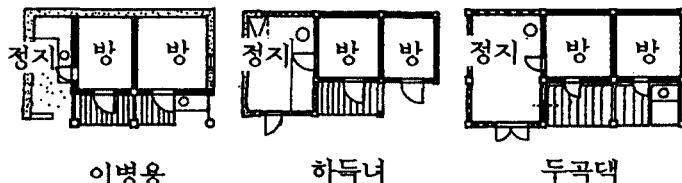


그림 2. 전면 3칸형 안채의 기본형(Ⅱ)

Ⅱ-1 : 3칸 홀집형의 典型으로 전퇴가 있고, 뒷마루가 제대로 갖추어진 유형이다. 전퇴에 완전한 뒷마루가 형성되어 아궁이는 측면이나, 후면에 위치한다. 마루의 우측 측면이 개방된 형태이다. 정지의 분화는 아

직 보이지 않으나, 이복순씨집의 경우 안방과 건너방의 벽체가 보방향으로 확장되어 내부공간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후퇴가 형성 되었으리라 생각 된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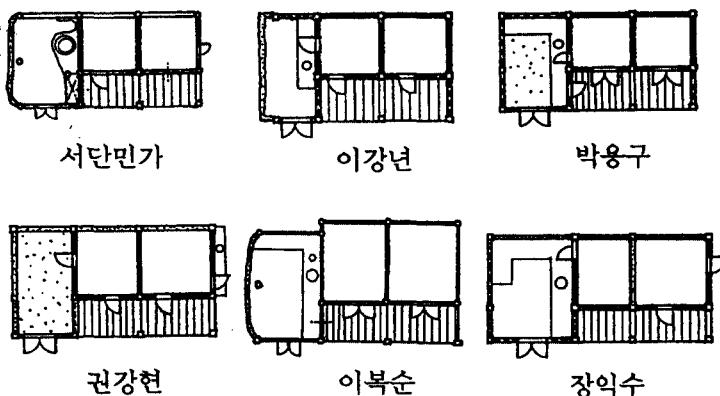


그림 3. 3칸형 안채의 변형(Ⅱ-1)

Ⅱ-2 : 뒷마루가 깊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방의 면적이 축소되는 평면유형이다. 이것은 외부에 노출되어 직접 외기에 접하는 뒷마루에서의 생활공간이 중요시 되었으며, 낮 동안에는 폐쇄적인 방보다 개방적인 뒷마루의 이용이 많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온난한 기후적인 영향과 농업의 발달로 인해 외부공간인 마당에서의 작업기능이 마루로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평면 구성의 특성은 3칸형 뿐 아니고 4칸형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 유형에서는 접집화와 아울러서 정지의 분할현상(정지+정지방)이 돋보이는데, 정지가 전면에 위치하는 경우와 후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정지가 후면에 위치하는 경우 정지방은 전면부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정지의 출입은 측면으로 돌아서 하게 된다. 정지방은 바닥면의 상태, 정지칸의 크기에 따라 그

명칭이 정지방, 정지마루, 뒷방 등으로 나뉘어진다. 정지방은 간살이 커지게 될 경우 바닥을 온돌로 하여 식사공간, 혹은 수장공간이 되며, 생활규모가 커지면서 마루를 내어 식사 및 조리공간이 되거나 외부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4칸형, 5칸형의 평면유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0년경에 건립된 김도석씨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평면형태는 3칸형을 따르지만 좌측 담장까지 확장하여 마루를 달았으며 정지방의 크기는 안방과 건넌방의 크기와 같다. 뒷방(정지방)이란 정지 뒤로 규모가 작은 방을 만들어 정지에 필요한 수장공간 역할을 하는것을 말하며 바닥은 훑바닥으로 되어 있다. 정지마루란 뒷마루와 접속하여 마루쪽으로 샛문을 달아 재물찬장, 혹은 정지에 부속된 수장공간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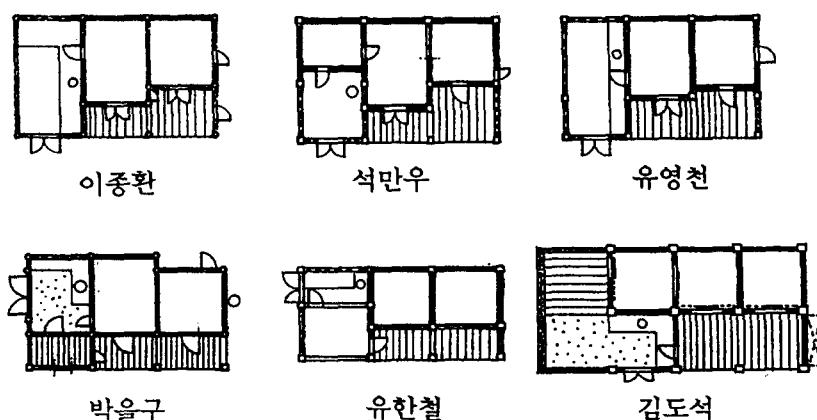


그림 4. 3간형 안채의 변형(Ⅱ-2)

Ⅱ-3 : 천마밀 공간까지 주공간이 확장된 평면유형이다. 후면의 추녀선까지 방의 면적을 극대화시킨 유형으로 정식 퇴칸이 형성되지는 못하였으나 공간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구분된다. 이것은 집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마루의 우측면에 판벽을 설치하거나, 샛문을 달아 마루공간을 부분적으로 폐쇄시켜 마루에서의 생활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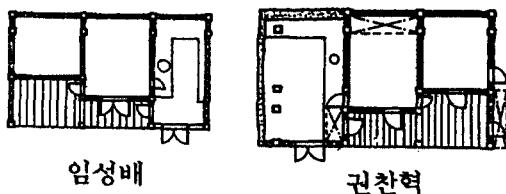


그림 5. 3간형 안채의 변형(Ⅱ-3)

Ⅱ-4 : 이 유형은 퇴마루의 일부분이 방으로 변형되면서 겹집보다 폭이 좁은 반겹집으로 발전된 평면유형이다. 마루의 면적이 축소됨으로써 생활공간으로서의 마루의 기능이 각 방으로의 동선연결을 위한 기능으로 나타난다.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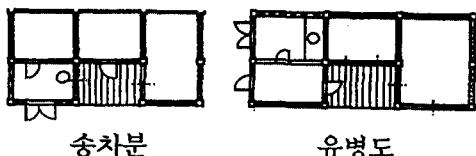


그림 6. 3간형 안채의 변형(Ⅱ-4).

Ⅱ-5 : 뒷마루의 발달이 현저하여 측퇴가 발생한 유형이다. 이것은 외부공간인 마당에서 각 방으로의 진입방식이 뒷마루를 통한 직접 진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간의 분화는 이 지역의 상류층주거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농업생산력의 확대와 그로 말미암은 부의 축적과, 유통의 중심지에서 상업자본에 의한 주택평면의 발전이라 생각되는데, 특히 이와같은 주의식은 주거의 합리성을 추구한 근대적 사고의 발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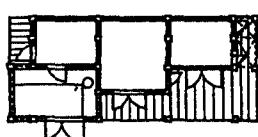


그림 7. 3간형 안채의 변형(Ⅱ-5)

3. 전면 4칸형의 평면유형(기본형 Ⅲ)

전면 4칸형의 평면구성은 정지+안방+대청+건넌방으로 이루어지며, 서민층주거와 상류층주거가 공존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별,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평면구성의 변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기본형 Ⅲ은 대청이 있는 가장 일반적인 4칸형의 평면형태이다.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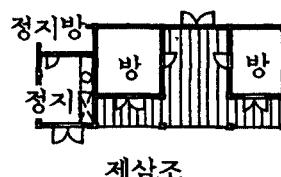


그림 8. 4간형 안채의 변형(Ⅱ)

Ⅲ-1 : 이 유형에서는 대청과 안청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것의 쓰임새는 계층과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지역에서 상류계층의 경우에는 앞면을 개방하여 대청인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민계층의 경우 안청 또는 고방이라 하여 주로 곡물을 보관하는 일종의 수장공간으로서, 형태상으로는 마당쪽을 향하여 중앙에 쌍여닫이 문을 두고 좌우의 벽면은 판벽으로하여 收藏用의 구조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줄어들면서 마루공간을 조금씩 넓게 활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와같은 특성은 이 지역이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온난한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외부공간인 마당의 작업기능이 뒷마루로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9 참조)

Ⅲ-2 : 이 유형은 상류층주거의 4칸형 평면유형이라 할 수 있다. 半間의 後退를 만들어 각 방의 생활공간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늘어난 부분에 벽장을 두어 내부생활공

간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청쪽의 후퇴는 마루를 깔아 뒷마루를 두거나,半칸의 방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수장공간의 구

실을 하나, 앞에서 살펴본 유형에서의 안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된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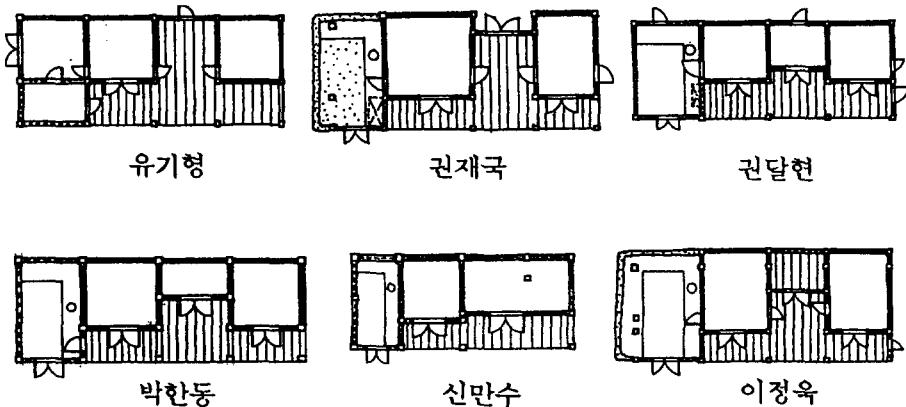


그림 9. 4간형 안채의 변형(Ⅲ-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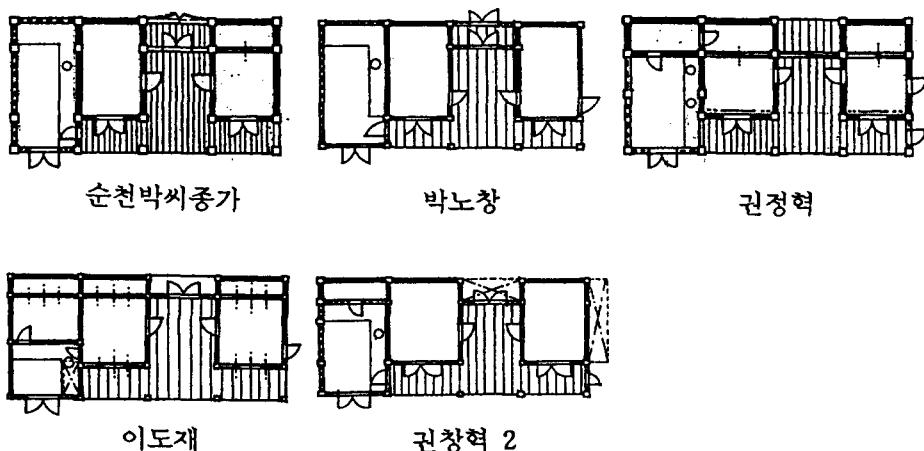


그림 10. 4간형 안채의 변형(Ⅲ-2)

Ⅲ-3 : 이 유형은 이마을에서 계층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거나, 경제력으로 부농형에 속하는 주거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단위공간을 다른 용도의 단위공간으로 기능을 변경시키나, 겹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영도씨집의 경우 전면 3칸형에서 좌측으로 방과 마루를 덧달아 내어 전체적으로 볼때 4칸집의 평면유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부농형 주거에 속하는 김한수씨집(그림. 11)의 경우 층

면을 3칸으로 하고 각각의 칸의 크기를 6尺으로 통일시켜 전체적으로 집의 규모를 크게 하면서 내부 생활공간도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건축의 풍토적 특성과

관습 등이 기술발전, 주의식의 변화, 사회적 제도, 생활내용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기인된 결과라 생각된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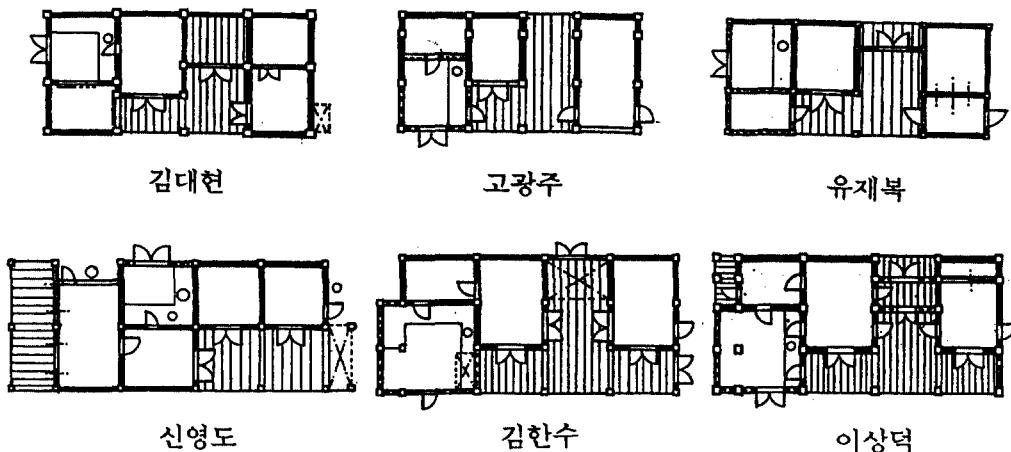


그림 11. 4간형 안채의 변형(Ⅲ-3)

4. 전면 5,6칸형의 평면유형

전면 5칸형의 평면 구성은 정지+방+방+대청(안청)+방으로 이루어지며, 6칸형은 여기에서 대청이 2칸으로 늘어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마을에서 전면 5,6칸형의 평면구성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공간의 확대는 보방향의 확대와 도리방향의 확대로 생겨나고 있다. 즉, 보방향의 확대는 칸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처마의 끝까지 벽체가 물려섬으로써 내부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가장 쉽게 이용되고 있다. 일정부분의 벽체확장이 시행되면 그 다음에는 각 방별로 기둥의 배열을 달리하여 뒷집(전·후뒷집), 겹집으로 질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그림. 12,13 참조)

도리방향의 확대는 칸수의 증가를 통한 건물 규모의 확장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력의 증대에 따라 도리방향으로 6칸까지 확대 되며, 보방향으로는 홀집이

퇴칸이 있는 겹집으로까지 間分化가 진행되고 있다. 정지부분도 겹집으로 변해감에 따라 면적이 확대되어 난방부분과 취사부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정지에 필요한 수장공간들이 정지에 접속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뒷마루가 발달하여 퇴가 깊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 뒷마루가 각 방을 기능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기능적인 요구로 축퇴도 발달하여 방으로의 진입이 뒷마루를 통하여 방으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같이 전면 2칸형에서 출발한 민가의 평면은 도리방향으로 면적이 양적으로 증가하다가 전면 5,6칸형에 도달하여서는 보방향으로도 면적이 증가하여 비교적 복잡한 공간구성을 나타내어 겹집화의 경향을 띠거나 퇴가 발달되어 질적인 변화도 수반하는데, 이같은 현상은 조선후기 경제력의 증대에 따라 다수 나타나는 富農形住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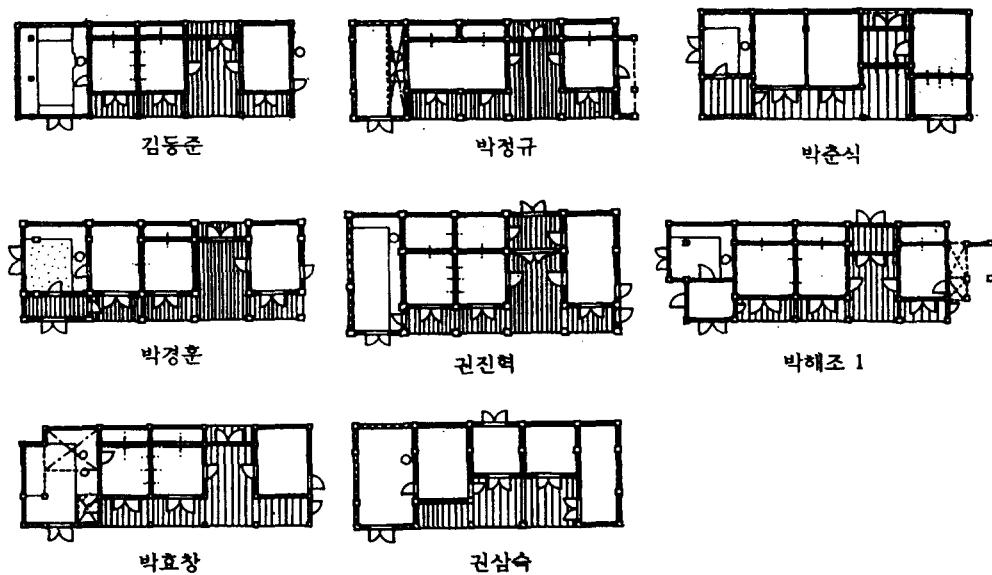


그림 12. 5간형 안채의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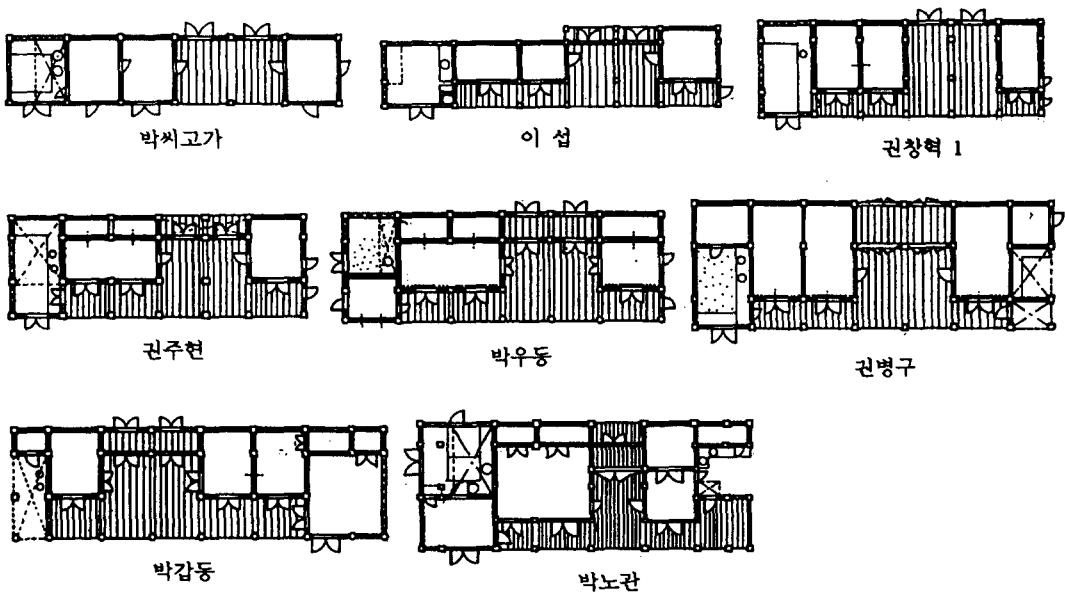


그림 13. 6간형 안채의 평면유형

IV. 사랑채의 평면유형(29채)

사랑채는 사회문화와 주의식의 변화에 따라 원래의 기능이 퇴화하여 주택내에서 가장 변형이 심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랑채는 곡물, 농기구,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일종의 수장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거주자의 고증을 통해서 본래의 기능과 형태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것만 고른 결과 29채가 되었다.

사랑채의 평면형태를 보면 중앙대청형, 전면툇마루형, 마루偏在形, 복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중앙대청형(그림. 14)은 4칸형 민가의 안

채에서 부엌을 빼어낸 형태로 중앙에 대청이 있고 양쪽에 각각 2칸, 1칸의 방이 있는 형태이다. 안채와 사랑채가 병렬로 배치된 상류층주거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西丹齋閣과 순천박씨종가처럼 사랑채 위주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 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가장 발달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마당과의 동선연결이 대청의 판장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사랑채가 남성의 공간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권병구씨가는 보방향으로 확장되어 겹집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확장된 공간은 안마당과도 잘 연결되고 있다. 김동준씨가의 경우는 4칸의 사랑채에 중문칸이 추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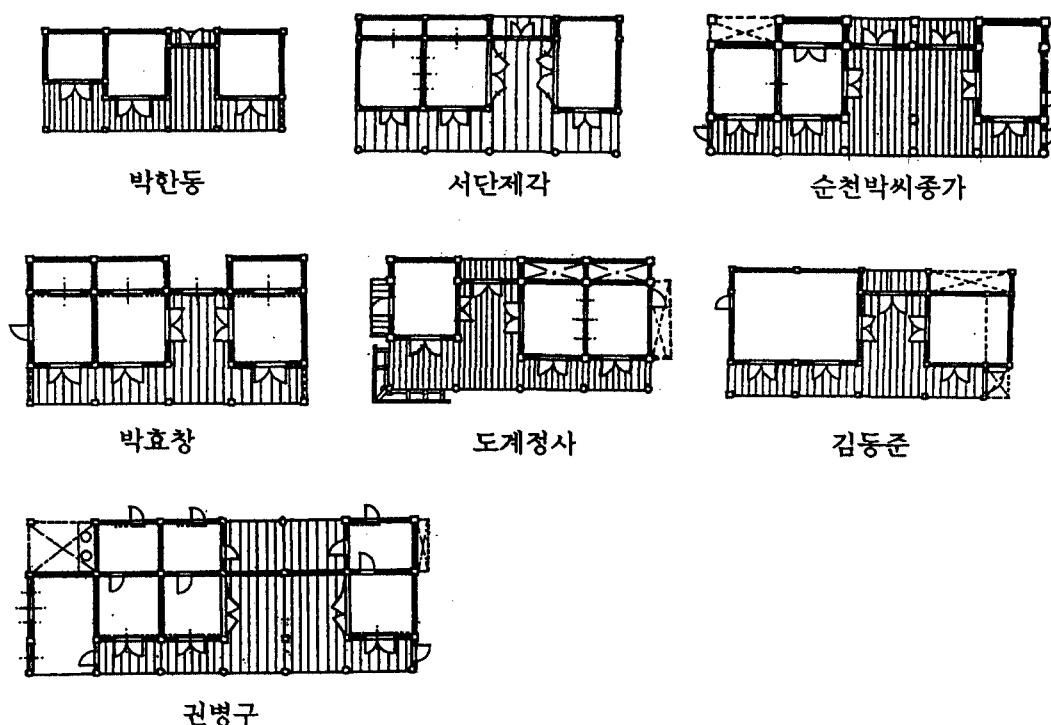


그림 14. 중앙대청형의 사랑채 평면

전면툇마루형(그림. 15)은 가로로 전체에 걸쳐 방이 배열되고 그 전면에 툇마루를 두는 형태이다. 주로 안채와 사랑채가 병렬로

배치된 주택에서 나타난다. 이 형도 중앙대청형과 마찬가지로 안마당과의 연결이 절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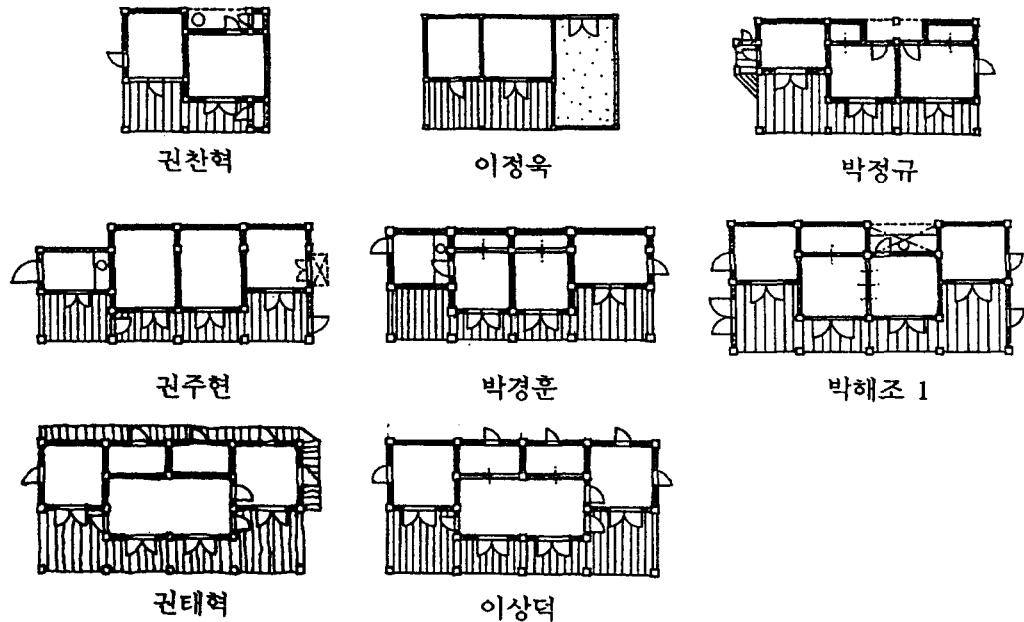


그림 15. 전면툇마루형의 사랑채 평면

마루편재형(그림. 16)은 전면툇마루형과 유사하나 가장자리 한쪽이 마루로 되어 있는 유형이다. 박노관씨가의 경우는 전면툇

마루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절충형이나 마루편재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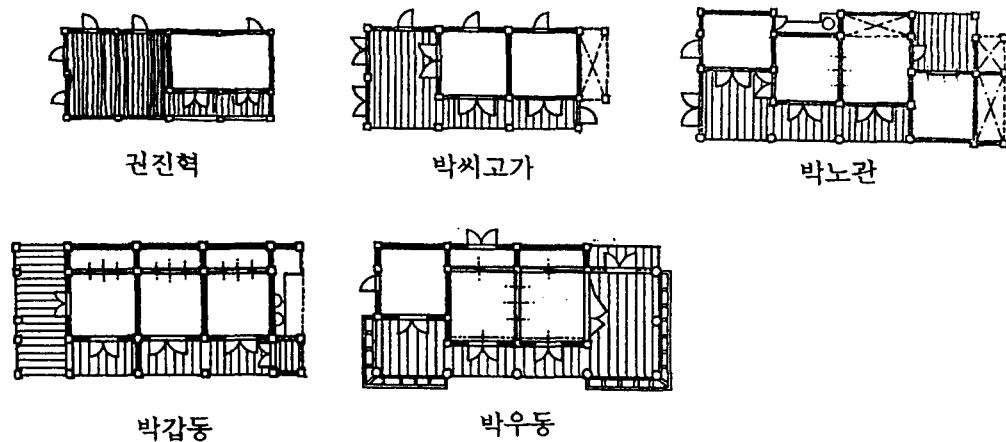


그림 16. 마루편재형의 사랑채 평면

복합형(그림.17)은 축소된 사랑채에 창고나 방이 부가되는 형태이다. 부가된 공간의 출입은 안마당에서 행해진다. 주로 서민형

주거에서 나타나는데 안채와 사랑채가 직교형으로 배치된 주택에서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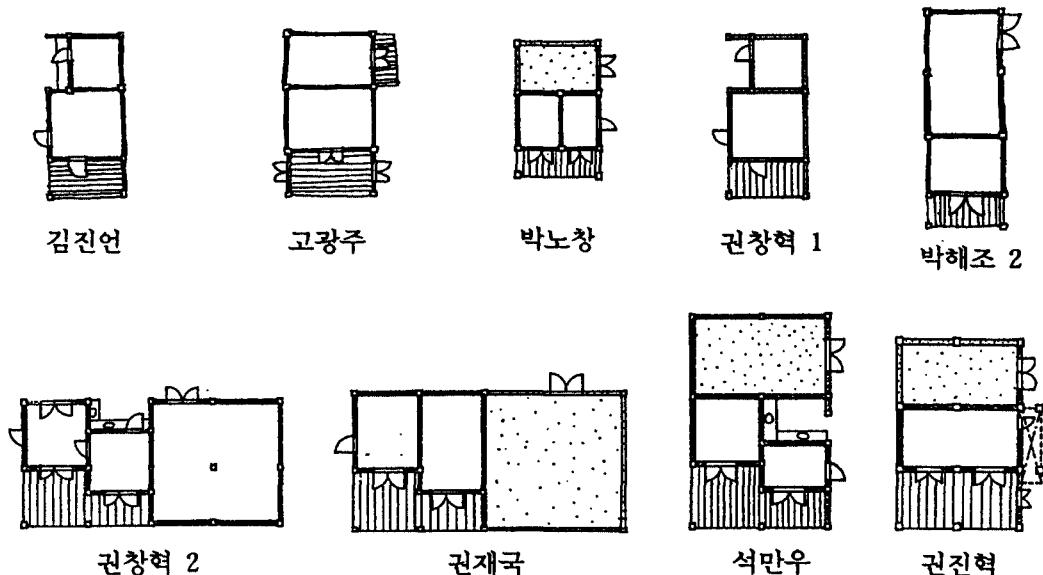


그림 17. 복합형의 사랑채 평면

V. 결 론

한 지역의 전통건축은 그 지역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화의 同化作用으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를 구성한다. 전통적 취락에서는 특히 정보의 유통이 느렸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현저히 나타난다. 전통적 축조 방식에 의하여 지어진 주택이 비교적 다수 남아있는 단계리의 주택 63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단계리의 전통주택들 사이에는 상류주거와 서민주거를 통틀어서 일정한 법칙 하에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택의 배치와 건축형태가 다양하여 동일한 구성의 주택이 한 채도 없지만 전체를 일관하는 질서는 내재하고 있다.
- 안채 56채는 전면2칸형, 전면3칸형,

전면4칸형의 3개 기본형을 바탕으로 9 가지의 변화된 유형들이 나타난다.

- 전면 2칸형의 안채의 평면은 도리방향으로 면적이 양적으로 증가하여 전면 6칸까지 발전되며, 전면 3칸형과 4칸형의 경우에는 보방향으로도 면적이 증가하여 퇴가 발달하고 겹집화하는 등 복잡한 공간을 구성하여 질적인 변화도 수반한다.
- 사랑채 29채는 중앙대청형, 전면툇마루형, 마루편재형,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参考文獻

-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이규성, 지역건축의 규범적 질서에 관한 고

찰,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논문집 제
1호, 1989. 2.

이상정, 한국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상응
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6.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5. 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